

『율리시즈』의 여성의 언어와 담론들 — 「페넬로페」를 중심으로

안 정 숙

I. 여성언어

『율리시즈』의 마지막 장인 제 18장 「페넬로페」(“Penelope”)에서는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등장 인물인 몰리(Molly Bloom)의 독백이 이어진다. 그것은 인물이 관객을 향해 직접 내면을 토로하는 연극의 독백과 흡사하다. 이 장에서 조이스(James Joyce)는 7장 이후 계속되었던 문체 실험을 중단하고 원래의 문체로 돌아가는 듯 보인다. 단일한 주체의 해체라는 실험은 사라지고 주체의 내면을 재현하는 앞서의 6장의 문체로 돌아간 것은 방랑이 끝난 후 작가의 귀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7장 이후에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화자는 프로테우스의 변신과 닮았으며 화자는 말하는 인격체라는 가정을 떨치고 거의 기계적인 글자로 변했었다. 단일한 의미의 근원으로서의 존재라는 화자의 권위가 전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글쓰기의 모든 양식의 임의성과 우연성을 드러냈다. 조이스의 문체상의 실험을 추적한 로렌스(Karen Lawrence)는 월튼 리츠(Walton Litz)의 견해에 동의하여 조이스가 인습적 글쓰기로 돌아갔음을 지적하고 이 장을 무종결로 여긴다는 작가의 주장과 달리 종결감을 준다고 비판하고 여성의 목소리에 특권적 위치를 부여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204-5). 로렌스가 『율리시즈』를 작가 자신의 글쓰기의 오디세이로 보고 이 같은 실망을 표명한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목소리에 공간을 내준 희귀한 작가의 예로 보인다. 조이스는 여성적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공간을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모이는 혁명적 주체는 상징적 질서를 붕괴시킬 기호학적 운동성의 환회를 주며 그 중 탁월한 예는 로트레아몽이나 말라르메같은 19세기 아방가르드 시인들이나 조이스 같은 작가라고 말했다(Moi 170).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물리의 목소리를 듣는다(Budgen 262). 물리의 말하기의 특징을 분석한 헨케(Suzette Henke)는 물리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추론에서 배제되어 온 것은 그녀가 유동적으로 말하기 때문이고 그녀의 목소리 하(subvocal)의 반복어가 무형의 비합리적인 신경증적인 언어와 닮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127).

헨케의 해석은 물리의 언어적 특징을 무의식적인 남근적 기표의 추구와 연관 지은 것인데 상징 체계의 차원에서 물리의 모순 어법은 상충되는 의식을 보여준다. 물리는 상충하는 이데올로기와 수사 체계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인물로 그녀의 의식은 수많은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바흐겐에 의하면 개인의 의식은 자아와 주변 환경과의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자리하며 반드시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의식의 논리는 이데올로기적 의사소통의 논리이고 사회적 그룹의 기호적 상호 작용”이다(Volosnov 13). 물리는 지배적인 더블린의 목소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인물은 아니다.

호머가 페넬로페를 말없이 직물을 짜는 아내로서 정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내버려두었다면 조이스는 성적인 수다의 담론 속에 그려진 물리의 흘러 넘치는 반복어에 목소리를 부여했다(Henke 9). 프랭크 버전은 “그녀의 생각들은 평등 공화국의 시민들처럼 서로 싸운다”(265)고 평했다. 물리의 의식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싸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므로 그녀의 독백은 시끄럽다.

물리는 당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호명하는 자아의 의식을 구축하고 있고 거티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에 의해 통제 받는 자기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녀는 대중 포르노 소설의 유희녀를 무의식 중에 흉내낸다. 그것은 당대의 고정된 성 관념의 감옥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는 인습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발화 밑에 깔고 있다. 물리의 독백은 단일한 의식으로 통일된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나 틈새들을 통해 잉

여의 목소리가 유출된다. 물리의 의식은 상충되는 목소리들이 흘러 넘치는 즐거운 축제의 저수지이다.

『율리시즈』는 바흐젠 식의 대화적 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보이며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의 담론들이 서로를 결눈질하며 경쟁하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조이스가 여러 목소리들이 나와 서로 경쟁하도록 내버려둔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II. 물리/블룸/밀리의 목소리

『율리시즈』가 미국에 수입됐을 때 외설성을 이유로 법원에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관습적으로 금기시 되던 배설 등의 소재와 욕설,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나 묘사 때문이었다. 판사 울시(John M. Woolsey)는 이 작품이 중 하류층 여성의 성격을 그려내기 위해 실험이 필요했으며 작품이 이례적으로 솔직하나 섹스를 위한 섹스라는 음란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포르노 작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Ulysses, Random 판 ix). 판결 내용에서도 반복됐지만 성에 관한 담론은 특히 물리를 중심으로 교차한다.

조이스는 물리의 육체적인 면모를 강조해서 “완벽하게 건전한 꽤 찬 관능적인 수태 가능한 믿을 수 없는 매력적인 빈틈없는 제한된 신중한 무심한 아내”(Letters 1, 170)라고 묘사했다. 물리는 「페넬로페」장에서 침대 위에 블룸과 거꾸로 누워 막 잠이 들려는 상태이다. 그녀의 의식의 흐름이 독백의 형식으로 이어지며 그녀의 성욕이 검열 없이 흘러나온다. 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거침없이 느낌을 토로하는 주인공 물리를 만났을 때 당시 독자들은 당황했다. 뿐만 아니라 점잖지 못한 소재들인 월경이라든가 소변, 방귀, 자위, 대하 등은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외설적인 포르노로 여겨졌다.

물리의 의식은 흘러나오는 언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것은 분절이 없으며 끝없이 이어진다. 조이스는 검열되지 않은 채 승화되지 않은 의식의 흐름의 독백을 통해 여성의 성에 대한 텍스트적 전시로 독자를 초대한다(Henke 126-7). 물리의 말은 횡설수설하며 일관성이 없다. 그녀는 구체적 사실조차 분명히 말하지 않는데(“4년만 더 있으면 나는 서른 다섯 살이 되지 상관할 게 뭐람 도대체 나는 몇살이더라 9월이면 서른 세 살이 되지”)(618. 앞으로는 괄호 속에 꼭 수만

표시함.) 도대체 물리는 몇 살인가. 자기가 살이 찌서 다이어트를 하든가 콜셋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다가 그리 뚱뚱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 날 보일런과의 정사를 즐겼다고 했다가 실제로 즐긴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물리는 합법/비합법의 경계를 무시한다. 결혼 생활에서 혼외정사를 벌인 것을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는 자신의 성욕을 숨기지 않지만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삶의 쓸쓸함과 소외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변명이거나 자기 합리화로 여겨져 왔으나 일리가 있는 항변이다. 물리는 성적인 이유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돈 많고 권력을 갖고 있는(오페라단 단장) 보일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는 자신이 성에 대해 솔직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가 부과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담론 중 상당 부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무로 치부하는 지배 담론에 저항한다. 그것은 자신을 냉대하는 남편의 비난에 간접적으로 항의하는 셈이다.

물리는 가부장제에서 요구하는 성적 매력이 사회 내에서 살아남는 수단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은 대개 대중문학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물리가 주로 읽는 대중 로맨스의 남성상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처럼 돌보아주는 따뜻한 상대로서 불륜과 정력적인 성적 파트너인 보일런과 같은 인물들은 성적 신화로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읽은 대중 소설, 오페라, 연극, 잡지 등은 당대에 지배적인 대중 담론을 유포,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다. 그녀는 이 담론들이 생산하는 이데올로기들에 함몰되어 있으나 한편 그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앤 로잘린드 존즈(Ann Rosalind Jones)는 문법이나 구문뿐 아니라 서술 기법의 인습도 모두 외부적 리얼리티에 대한 통일된 시각과 통제를 암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단어, 구문, 장르, 언어에 대한 낡은 엘리트주의적 태도, 그리고 오랜 가부장제의 시기 동안 여성의 자기 인식과 표현을 제한해온 재현에 대한 태도 모두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agleton 229-30). 존즈는 남자가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과 관계를 가짐으로써만 의미를 갖는 타자임을 지적한다. 그녀는 씨수(Cixious) 등 다른 페미니스트들을 의식해 여성의 글쓰기를 한 여성의 자기 신체와의 매개 없는 의사소통이 흘러 넘친 것으로 보다는 사회문학적 리얼리티들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인다면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Eagleton 230).

가장 대중적인 담론 중에 조이스는 페넬로페의 이야기를 패러디하여 정절의 신화를 해체한다. 호머의 작품에 나왔던 페넬로페(Penelope)가 조용히 편물을 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라면 몰리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그녀는 구애자들을 물리치지 않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유혹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녀가 욕구를 느끼는 남성은 사회의 모든 지위와 계층, 연령을 망라하고 있다. 나이든 신부부터, 농부, 교수, 학생, 가수, 건달, 군인, 외국인, 흑인, 깡패 살인자, 집시, 수병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거론된 남자만도 25명에 이른다. 호프만에 따르면 그녀는 “순진한 욕망의 문학적 시위이며 그녀의 성적 만족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갈망하는 바”이다(Hoffman 139).

몰리는 여성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인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와의 사랑을 즐긴다. 그녀는 그날 4시에 정부인 보일란(Boylan)을 만나 밀회를 즐기고 흐뭇해 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과 10년 반 동안 아무 관계도 없었고 오늘 보일란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졌다. 그녀는 오페라 가수로서 오페라단 단장인 그와 공공연히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스캔들은 더블린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연애는 남편 탓(“저렇게도 냉정한 그이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시들어빠진 할망구가 되지 않은 것이 이상스러워요 나를 안아주는 것도 단지 마음이 내킬 때뿐이지 잠잘 때는 나와 거꾸로 자지요”)(639)이라며 오히려 그들이 공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룸이 연애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계속 의심하며(“그렇지 그이가 붙어 있었던 것은 어떤 창녀야”)(636) 몰리는 블룸이 여자들을 훑쳐보곤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사내들은 여자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지”)(609). 주변에 여자만 나타나면 한눈을 파는 블룸의 바람기에 불만을 느끼며 관심을 둔 대상들을 열거하는데 목록은 길게 이어진다(병원에 입원하며 간호원과 연애를 벌일까봐 걱정이라며 블룸이 들고 다니는 사진 속의 수녀, 스택크 양, 밤의 여인, 펜팔 친구, 하녀, 조시 파우얼, 조지너 심프슨).

기존의 비평가들은 이것을 그녀의 변명이거나 자기 합리화로 해석했다. 그러나 관점을 변경하여 몰리를 다시 읽으면(“그이는 내가 일을 속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걸 아니야 나는 지나치게 정직해”)(630)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다. 독자는 앞에서 단편적으로 알게 된 몰리의 정사에 대해 장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듣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다. 블룸이 이 사건의

순수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자는 물리를 통해 그간 블룸의 말과 행동을 추측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처음부터 꾸미고 시행한 것은 주도면밀한 성격의 블룸이었다는 것이다(“그이가 생각해낸 온갖 계획에 대해서는... 메달이라도 타야할 걸”)(630). 물리의 말 속에 블룸이 그녀의 정사를 위해 밀리를 멀리 보내버렸고 그것이 그의 방식이라는 말(“단지 그이는 나와 보일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짓을 했을 거야 바로 그 때문이야 확실히 그런 게 그가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식이라니까 나는 요사이 그 애가 있었다면 이곳에서 아무 짓도 못했을 텐데”)(630)에서 방조 혹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개재되어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그이는 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야 아니 남의 기혼녀에게 손 내밀 용기는 없지 그이가 나와 보일런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야”)(636).

물리의 주장에 의하면 블룸의 소망에서 기인한 고의적 계획이 이런 결과를 부른 것처럼 보인다. 블룸은 아내를 거래하는 남자이다. 블룸은 자기 아내에게 누드 모델을 하라고 권한 적이 있었고—집안 형편이 극도로 어려울 때—보일런과 어울리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체한다. 새벽에 데리고 온 스티븐에 대해서도 남편이 자신의 상대로 골라 왔다고 생각한다(“그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에게 내 사진을 보이다니 잘 찍힌 것도 아닌데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야 할 것을 하지만 그걸 입으면 젊어 보지 그이는 전부 그리고 나를 또한 그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는지 몰라 하지만 안될 거 없지”)(637). 물리를 블룸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베자(Morris Beja 263)는 블룸의 필요에 의해 물리가 원형적 어머니로 신격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블룸은 물리에게 11년 전 죽은 아들 루디의 역할을 맡는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역할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남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 스티븐 테덜러스를 남편-연인(a husband-lover)의 역과 아들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264).

전설 속의 영웅 율리시즈 왕과는 달리 블룸은 반영웅의 모습을 띠고 있고 아내를 누군가에게 떠맡기며 무능하다. 유대인으로 이방에서 어려운 삶을 영위하며 아내를 다른 남자들—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유대의 영웅 아브라함과 닮아 있다(창세기 12, 20장). 그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방랑하며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 아니고 현재 형편이 극도로 어렵다. 수

없이 이사를 다녔으나 경제적 궁핍을 면치 못하는 가정 상황에 대해 몰리의 절박한 심경이 드러난다(“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들은 16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형편없어요”)(635). 그녀는 더 이상 궁핍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그래 언제나 똑같은 저 따위 버클리 푸주간의 고기는 이제 싫증났어 소의 허리고기 다리고기 쇠갈비 스테이크 그리고 지방을 뺀 양고기 송아지 내장은 이름만 들어도 지겨워”)(629). 생활의 터전인 직장에서 불륜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실직을 반복하는 사람으로(“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먼지에서도 얼마 안 가 해고되어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저 따위 신 페인 당인가 공제 조합인가 하는 구실로 말아야”)(635) 몰리의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11년 전에 죽은 아들의 죽음인데(“나는 그때 상복을 입고 있었어 그게 벌써 11년 전 일이네 그래 그 애가 살아 있다면 11살이 되겠지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 상복을 입다니 무슨 소용이람 처음에 한번 우는 것으로 충분해 내가 임종을 지켜 볼 때 시계가 벽에서 짹 짹 울리는 것을 들었어”)(640) 그녀의 자책에는 남편의 비난이 들린다. 모이(Toryl Moi)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다양한 구조들이 “과도하게 결정된” 현시라면 이 구조들은 무의식적 성욕이나 두려움, 공포 뿐 아니라 상충하는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10). 아이를 임신할 때 개의 교접을 보고 있어 아기가 부정을 타서 그런 운명을 타고 났다고 믿는다는 말에는 사회의 미신이 깔려 있는데 몰리는 이에 저항하며 (“그건 내 잘못은 아니야 우리들은 서로 포옹했으니까 내가 텅 빈 길 한복판에서 수놈이 암놈의 엉덩이를 타고 있던 두 마리 개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것은 완전히 나의 기를 꺾었어”)(640) 남편의 비난에도 자기 탓만은 아니라고 항의하는 것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불륜의 의식 속에도 자리잡고 있는데 연연중에 아내에게 주요 책임을 돌리는 듯이 보인다. 불륜이 11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내를 돌아보지 않은 것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유기로 보인다(“나는 밤이면 이따위 커다란 바라크 같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629) “그런데도 종일 나를 이곳에 버려두다니”)(630). 몰리는 불륜의 냉대와 쓸쓸함에 지치며 남편의 무시에 분노를 느낀다(“사내란 여전히 그와 같은 일에서는 폭군이야... 자기 자신의 재미만 생각하니... 그이는 우리 두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어 그래서 난 싫어”)(635). 불륜은 무관심과 방기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황폐하게 만드는 인물이다. 그는 끝

없는 바람기로 아내를 긴장시키고 오랜 동안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아내에게 죄책감을 가중시킨다(“그 이후로 우리들은 아주 변했어 오 나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우울해하고 싶지 않아”)(640).

몰리는 가정 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그 소외에는 불륜 뿐 아니라 딸인 밀리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 밀리는 사춘기를 맞아 반항하는 아이로 몰리의 걱정을 자아낸다(“저녁에는 집에 붙어 있지 않으려 하고 정말 야단이야 나도 그랬지만”)(631). 심부름을 시켜도 버릇없이 거부하는 딸의 따귀를 때리고 버릇을 고쳐 주겠다는 몰리의 말에서 보면 밀리의 실질적인 걱정을 떠맡고 가르치는 사람은 엄마인 자신인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그 애한테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의논하는 사람은 나지 그가 아니야 아마 그이는 나를 쓸모없는 인물이라 생각할 거야 글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로 아냐”)(630). 불륜은 밀리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며 몰리를 소외시킨다. 몰리와 불륜과 밀리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구도를 보인다(“최근 그이는 언제나 식탁에서 그 애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았지 신문에 실린 걸 설명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애는 이해하는 척 했지”)(631). 딸이 사춘기에 이르러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듯 보이나 엄마의 자유분방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밀리는 몰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둘 사이는 나쁜 것으로 그려진다(“그리고 그 애는 브로드스톤에서 헤어질 때 나한테 작별 키스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630). 밀리는 조신하게 행동하라는 엄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행실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다. 밀리가 엄마의 블라우스 가슴이 지나치게 벌어졌다고 지적하자 몰리는 “냄비가 솔더러 엉덩이가 시커멓구려 하는 격”이라며 빈정댄다(631). 몰리는 가족 내에서 불륜과 밀리의 비난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으며 그로 비롯된 쓸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녀의 태도에는 자책과 더불어 향의가 있으며 모순되는 말 속에 언뜻 내비치는 다른 목소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더블린의 소문은 대중들에게 퍼져 있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데(“아마 모두들 떠들썩하게 소문을 퍼뜨리며 시가를 돌아다닐지도 몰라 신문에 실어서 말이야 아니면 내게 관해서 경찰서에 일러바칠까 . . . 오 경찰 다 죽어 없어져 버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난 아무 상관없어”)(617) 그것은 결혼 생활의 정절을 요구하며 거대 담론들이 지지해주고 있다.

III. 성담론의 해체

이전 17장 말미에 조이스는 점을 찍어 끝을 맺는 파격을 보였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침표일 수도 있고 네모지고 둥근 알(a square round . . . egg)일 수도, 여성/난자, 즉 불륨이 돌아갈 물리일 수도 있다. 수식어가 의미하듯 물리는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다. 그녀는 단일한 언어로 구성해낼 수가 없이 상충되는 이미지들로 둘러싸여 있다.

물리의 적극적인 성격은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여성의 성은 없거나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억압에 대해 반대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이데올로기로 율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종교와 정치 문화 체계들이 뒷받침한다. 여성에 대한 가장 큰 억압은 가부장제인데 그것은 여성을 타자화하여 남성의 자아를 확립하고 그 위에 담론을 세우는 상징계의 질서이다. 여성은 수동적인 응시의 대상이며 성녀처럼 성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범주를 벗어나 적극적인 표출이 있는 경우는 유혹녀로 분류된다. 여성은 성녀/유혹녀의 이분법의 범주에 갇히게 되며 이 이미지들은 모두 남성의 환상이 투사된 것이다. 이 체계 내에서 여성은 자신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징체계 안에서 여성은 “없다”고 규정된다. 여성은 응시의 대상이 되고 타자화된다. 여성은 텅 빈 존재로 가정되는데 물리는 경계를 넘나들며 근거를 무너뜨린다. 물리는 대지의 여신이자 유혹녀이고 어머니이자 정부이다. 물리는 체계가 규정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로 대항 담론을 내놓는다. 그녀의 말은 일관성이 없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아우성치고 있으며 권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기대한 독자의 암묵적 가정을 비웃는다.

세상사람들이 그 것에 대해서 뭐라 하든 우선 중요한 것은 처음 뿐이고 지나고 나면 전혀 아무 것도 아닌 양 그 따위는 더 이상 생각지도 않지요 결혼하지 않고선 왜 남자에게 먼저 키스할 수 없담 때때로 온몸이 활활 타는 듯하지요 기분이 좋아질 때에는 미친 듯이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남자든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양팔로 끌어안고 키스해 주었으면 좋겠어 길고 열렬한 키스에 비할 것이 또 어디 있을까(610)

물리는 사회 내에 다양한 담론들을 쫓다 풀어냈다 하며 그것의 근거를 전복

하는 혁명적 행위를 수행하는 셈이다. 문학사상 여성의 눈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남성의 성을 응시하며 말한 인물은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회의 여러 담론들에서 규정되는 여성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리가 빅토리아조의 사회적 담론들에 물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기까지 한 것처럼 보이거나 그녀는 기존의 담론에 겹쳐 쓰기를 시도한다. 남성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위해 그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자신보다 상대의 쾌락을 염두에 두는 행동을 보이거나 “그들 가운데는 그러한 짓을 할 때 여자가 암전히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으니”(621)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의미인 자신의 매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다. 그러나 보일란과의 만족스런 정사 후에 충족감을 보이거나 그가 보였던 남성 우월적 태도에 대해 분개한다. 그가 행위가 끝난 후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명령하며 놀리는 듯한 어투에 반감을 가져 그를 무시하는 마음을 내보인다. 특히 스티븐을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뒤로는 아예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그가 부주의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일방적인 것에 대해 분개하며 “나는 말도 당나귀도 아니라”(610)고 항의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소심한 것은 여건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여성의 종속을 비판하고 남성들의 성기 자랑을 조롱한다. “남자에게 저마다 두드러진 두 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고 또 다른 한 개가 앞으로 수그러져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모자걸이처럼 앞을 향해 곧추 서 있다면”(620) 가려야 마땅하며 “고놈의 것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나 되는 것처럼”(620) 빠기는 것을 비웃는다. “게다가 그이는 저무도록(?) 커다란 엉덩이뼈를 가지고 나에게 덮쳐오니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이의 털 많은 가슴을 가지고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언제나 드러누워 있어야만 하다니 그이가 뒤에서 밀어 넣는 것이 한층 나을 거며”(617) 그녀는 보일란이 이빨로 난폭하게 문 것에 분노하며 (620) 상대방이 처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침대 위에 얼룩을 보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다(633). 물리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성기를 조롱한다. 처녀 시절 때로우분 거리를 걸을 때 남녀 성기를 빗자루에 빗대 말하는 걸 들으며 자기들이 결국 빗자루에 자루를 다는 셈이라고 조롱한다(638-9).

엥겔스는 가족과 국가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면서 모권 중심 사회에서 남성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은 사유재산의 형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남성이 주도권을 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가축을 돌볼 노동력이 필요한 이때 여성은 인력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팔렸다(84-5). 노동의 도구를 소유한 남자는 가정 내에서 가장의 특권을 보장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자본주의의 발현은 세계무역과 제조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며 인간 관계를 상품거래로 변질시켰다. 물론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한 구매와 판매라는 원칙이 있었으나 결혼이 법률적 거래라고 해도 거래 주체는 바로 남자들이었다(Engels 110-11).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가 재산을 물려주고 혈통을 이어줄 후계자를 생산하는 자궁의 역할이 강조되어 종속된다. 그녀의 몸은 남편을 비롯한 사회의 재산으로 미래의 인적 자원을 길러낼 유용한 존재로 사회의 담론들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된다.

물리는 타자의 욕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타자의 마음에 들고 싶고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타자의 응시를 의식하며 행동한다. 물리는 다른 더블린 사람들처럼 타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마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물이다. 타자의 욕망은 사회의 여러 담론들인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목소리는 거티에게와 마찬가지로 상품 광고, 신문기사, 잡지, 통속 소설 등이다. 그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무한정한 욕망을 조장해내는 담론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이 성적 담론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개인의 성에 대해 담론을 만드는 메카니즘을 보여준다. 한 예로 가톨릭은 고해의 의식을 통해 개인의 죄를 꼬치꼬치 심문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육체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만들고(19-20) 개인의 욕구를 방향을 돌려 신에게 돌아가게 한다. 그 결과로 개인의 성은 단지 심판되는 것 뿐 아니라 다스려져야 할 사안이 된다(24). 인구는 부의 근원, 노동력, 자원과의 관계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된다(25). 권력은 출산을 관리하기 위해 결혼 연령, 합법적 출생, 성관계의 빈도, 미혼생활의 효과, 금지, 피임 등을 여성의 몸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권력의 요구에 합당한 논리를 제공하는 담론들이 뒷받침하게 된다(26). 당연히 사회에 기여할 생산이 없는 관계는 금지당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와 어린이의 성이다(37). 서구 사회가 성을 통제한 두 가지 체계는 바로 결혼법과 욕망의 질서이다. 권력은 법을 성에 부과하여 합법/비합법,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체계 안에 놓이게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는데 성을 통제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혹은 담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인데 담론은 발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의 지배를 창출한다

(83). “권력은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규율이 된다”(83).

그러나 몰리는 남성의 성을 중심으로 한 남성우월주의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세상의 가장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사의 프로포즈는 받아들여야 해 그 밖의 별도리가 없지 남자들에게는 그것으로 족하겠지만 여자로서는 나이만 먹으면 곧 잣간 바닥에 던져 버리니 별도리 없잖아요”)(624). 이것은 실컷 농락 당하고 버림받은 여자의 소송사건에서 배운 교훈이다. 그러나 그 이데올로기가 기반하고 있는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고를 하고 있다(“그건 그들이 꿈꾸고 있는 망상이야 그들의 텅 빈 머리 속에 아무 것도 차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에게는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는 독약이나 먹여야 돼 그들 받은 말이야 그리고 차 가져 오라 버터 바른 빵을 가져 오라 신선한 계란 가져 오라 말하지”)(635). 남성의 방종과 지배욕을 비판한다. 남자들이란 다시 어디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워 고를 수가(?) 있지 유부녀건 방탕한 과부건 아니면 처녀건 자기 취미대로 뒷골목의 집들처럼 아니야 하지만 거기서는 언제나 여자들을 사슬에 묶어두려 하지)(639).

몰리는 가부장제가 부여하는 가치를 수용하는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낸다. 여자들에게 부과된 가사의 지겨움(“누가 여자더러 그따위 일을 하도록 생각해냈던가 옷이랑 요리랑 그리고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뭐람 도대체가”)(633) 드러낸다.

몰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남자들 대신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여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나을 거야 여자들이 서로 죽이거나 학살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누구에게나 원한을 품는 것은 싫지만 그토록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온갖 고뇌 때문이라”고 이해한다(640).

여성들의 자유분방함을 지적하는 주교의 설교가 지루했다고 토로하는(626) 몰리는 성처녀의 이미지를 탈신비화하며 가부장제의 가장 큰 지주 이데올로기인 교회의 담론을 뒤집는다.

저 대가 프랑스와의 작품에선 여인이 탈장을 해서 귀로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
누구든 성직자가 쓰기에 그럴 듯한 말이군... 나는 무엇보다 체하는 건 딱 질
색이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619)

인치코어에서 본 성모 팔에 안긴 아기 침대 속의 예수처럼 확실히 어떤 여자

고 그렇게 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처음에 그 아이가 성모의 옆구리에서 나온 줄 알았다니까(619).

성녀와 유혹녀의 경계를 허무는 물리는 사제들과의 일을 털어놓으며 위선을 비판한다.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코리건 신부는 “남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댄다는 말”에 꼬치꼬치 신체 부위까지 은밀히 묻는다(“아가씨 그대의 몸 어디쯤이지요 다리 깊숙한 곳인가요 그래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었어요 그 대가 앉는 곳쯤인가요”)(610). 물리의 주교하고도 “하고 말았다”(610)는 말은 정절을 강조하는 종교의 위선에 대한 코믹한 풍자이다.

IV. 또 다른 언어

여성은 무질서를 파종하는 사람으로서 결핍의 언덕에 우리의 삶을 퇴적시킬 이유가 없으며 『올리시즈』의 물리처럼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한다. 씩수는 물리의 마지막 이 말이 『올리시즈』를 어떤 책도 넘어서는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를 지향하도록 했다고 평한다. 그런 여성적 글쓰기가 작가의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며 가끔 예외적인 남성 작가들이 “영광스러운 단성성(monosexuality)”과의 관계를 끊고 양성성을 성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Cixious 341).

물리는 씩수의 말대로 페넬로페에게 부과되었던 정숙의 이데올로기를 과감하게 떨친 인물일 뿐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 스콧(Bonnie Scott)은 육감적인 여성을 등장시킨 것은 조이스가 당대 사회의 가치, 즉 가톨릭과 영국의 퓨리탄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며 이성 중심적 사고 체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203). 물리의 언어는 자기 욕망의 표출 공간이다. 그녀의 언어는 크리스테바의 주장처럼 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테바는 여성주체는 시간의 여러 양식 중에서 본질적으로 반복성과 불후성을 보유한 특정한 운율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순환과 잉태, 생리적 반복은 자연의 리듬과 일치하며 무상성(temporality)을 부과하는데 그것의 규칙성과 초 주체적 시간, 즉 우주적 시간으로 경험되는 것과의 합일은 아찔한 비전과 이름 붙일 수 없는 쾌락(jouissance)을 불러일으킨다(Kristeva 445).

크리스테바와 마찬가지로 헨케는 『올리시즈』는 남/여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

리로 카니발적인 놀이를 벌이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과 법을 전복시켰으며 서술은 유동적이고 회피적인 기호적 텍스트라고 평하고 이것은 규범을 무력화시키는 미학적 환희(jouissance)의 서정적 강물로 우리를 되돌려 보낸다(Henke 11)고 말한다. 여러가지 역정을 거쳐 남편에게 귀향하는 모습은 남편이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더블린 시내에서의 방랑이나 작가 조이스의 문체상의 실험을 마치고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은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조이스가 여성의 언어에 대해 명확한 각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물리를 그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족을 비롯한 당시 대중 담론들과 사람들의 사고가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내며 끼어 들어 다성적으로 들린다. 물리의 목소리는 하나의 펜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다성적 목소리를 담고 있다. 조이스는 단일한 의식이라는 근원을 실험한 끝에 하나의 여성 주체의 언어를 실험하는데 여성의 목소리 자체에 포함된 전복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 조이스가 여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했다고보다는 그의 글쓰기 자체가 해방 행위였다.

(공사)

인용 문헌

- Beja, Morris. "Prefatory Note." *The Seventh of Joyce*. Ed. B.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P, 1960.
- Cixious, Helene. "The Laugh of Medusa." In *Feminisms: An Anthology of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1 Ed. Robyn R. Warhol and Diane Price Herndl. New Brunswick: Rutgers UP, 1991, 334-49
- Eagleton, Mary. *Feminist Literary Theory: A Reader*.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Engels, Friedrich.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State*. Trans. Michell Barret. Harmondsworth: Penguin, 1985.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1 Trans. Robert Hurly. New York: Random House, 1978.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Hoffman, Frederick J. *Freudianism and the Literary Mind*. New York: Grove P. 1959.
- Jones, Ann Rosalind. "Writing the Body." In *Feminist Literary Theory: A Reader*. Ed. Mary Eagleton.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oir. Harmondsworth: Penguin, 1986.
- _____. *Ulysses*. New York: Random House, 1961.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1. Ed. Stuart Gilbert. London: Faber and Faber, 1957.
- Kristeva, Julia. "Women's Time". In *Feminisms: An Anthology of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1 Ed. Robyn R. Warhol and Diane Price Herndl. New Brunswick: Rutgers UP, 1991, 443-62.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Moi, Toril. *Sexual/Textual Politics: Feminist Literary Theory*. New York: Routledge, 1985.
- Scott, Bonnie Kime. *Joyce and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P, 1984.
- Volosnov V. 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Trans. Ladislav Matejka and I. R. Titunik. Cambridge: Harvard, 1986.

Abstract

Woman's Language and Discourses in *Ulysses* — Focussed on “Penelope”

Jeong Sook Ahn

In the last episode of *Ulysses*, “Penelope,” Joyce comes back home finishing his odyssey of writing. He returns from a long journey of experiments in which he subverts all kinds of conventions of narrative. Admitting prestige neither of the narrator nor of the author, Joyce claims there is no absolute consciousness that articulates the narrative.

It might be suspected that Joyce tries to give the sense of ending to the story by returning to a single credible narrator, Molly. Apart from the problem of representation, the writer seem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ubversion in woman's voice. Woman's language has characteristics like repetition, cycle, rhythm which stem from her biological experience. Molly's language lacks correct structure, punctuation, and logic, in short, conventions of language, namely laws of the father. It can be regarded as an example of woman's language, which gives us *jouissance* as a semiotic text defined by Kristeva.

Molly weaves/unweaves a variety of social discourses that result from the symbolic system. Readers sensitized to the interplay of the competing voices will emphasize the dialogues between the narrator and the protagonist, the protagonist and the other characters, the writer and the protagonist. The voices are struggling to get the privilege in the narrative. Voices are related to the social value systems, that is, ideologies. Each ideology, however, registers as a language that is to be subverted by Molly's language.

■ **주제어**: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 몰리, 여성성, 여성언어, 바흐진, 다성성